

정문

대학 캠퍼스 내로 진입하는 주 출입구로서 정문을 의미하며, 서울과 ERICA캠퍼스의 정문 현황이 다르다

□

목차

- [1 서울캠퍼스](#)
 - [1.1 담장 개방 전 정문](#)
 - [1.2 담장 개발 후 정문](#)
 - [1.3 녹지공간 조성](#)
- [2 각주](#)

서울캠퍼스

서울캠퍼스의 정문은 현재 '구역'으로만 남아있고, 실제 정문의 형태는 없다. 대학을 따라 둘러있던 담장을 허물고 지역 개방을 한 이후로 대학 자체의 폐쇄는 불가능하게 됐으며, 보행 통로와 차량 진입로만 있다. 차량 진입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2개의 진입로가 있다.

담장 개방 전 정문

높진 않지만 기둥 형태로 구역을 정하고, 열고 닫는 철문이 존재했다. 넓게 개방하거나 쪽문 형태로 개방할 수 있도록 2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, 왕십리 방향의 정문까지 총 3개의 출입구가 존재했다.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주요 행사시 간판을 설치해서 행사를 알리는데 사용되었다.

80~90년대 운동권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정문이 캠퍼스와 외부의 연결 부분인 만큼 많은 시위가 벌어졌던 요충지였다. 다음 영상을 통해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다.

담장 개발 후 정문

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공식 정문은 왕십리 사거리와 연결된 출입구이다.



한양대 서울캠퍼스 정문

그러나 소속 단과대 별로 자주 이용하는 출입구는 다르다.^[1]

- [한양대병원 언덕길](#) : 왕십리에서 올라오기 편한 길로, [인문과학대학](#)과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음
- 중랑천과 이어지는 길 : [재성토목관](#) 옆 길로, 독섬역 인근 거주 중인 학생들이 도보로 등교
- [올림픽체육관](#) 앞문 : 많은 차량이 드나들
- [애지문](#) : 지하철 2호선 '한양대역' 2번 출구
- 나무계단 : [융합교육관](#)과 [간호대학](#) 건물 사이에 위치한 나무계단은 [제5학생생활관](#), [제1학생생활관](#), 사근동 거주 학생들이 주로 이용

녹지공간 조성

- [관련기사 : <뉴스H> 2020.11.10 \[현장\] "정문에 무슨 공사지?" 건물 허문 자리에 녹지 조성중](#)

각주

1. [↑](#) <뉴스H> 2020.08.10 [포토뉴스] 우리 학교의 정문은 어디일까?